국학연구의 1차 자료 '文集' 집대성

민족문화추진회, 「韓國文集叢刊」 1차분 발간

흩어져 있던 우리 선조들의 문집을 가려모아 총정리한 「韓國文集叢刊」 1차년도분이 편찬시작 3년만에 93종20책으로 발간됐다. '고전의 현대화'에 주력해왔던 민족문화추진회(회장 洪鍾旭)는 지난 1986년 우리 고전의 原典정리사업의 하나로 삼국시대에서 구한말에 이르는 4500여종의 문집 가운데 학술연구에 중요한 659종을 선정하고 10년에 걸쳐 모두 200책으로 영인 간행할 것을 계획, 그 결과로 우선 9집부터 28집까지의 20책이 첫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에 나온 20책은 조선 초·중엽에 활약했던 丁克仁·金守温·朴彭年·徐居正·姜希孟·金時習·李恒 등 93명의 문인·학자들의 문집이다.(別表 참조) 편찬은 원래 시대순으로 진행하는데, 고려시대 이전의 문집을 담은 1~8집은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아, 우선 15세기 조선조 문집부터 정리하게 된 것.

편찬작업은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위원장 韓沽劤)가 선정한 659종의 문집을 면밀히 조사하는 일부터 시작됐다. 8개월 동안 8명의 인원이 뛰어다니며 개인과 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전국에 산재한 문집의 소재를 파악했다. 워낙 귀중본이라 특수복사기를 가지고 다니며 복사하거나 필사해왔는데, 귀중본일수록 잘 빌려주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다. 어쨌든 국내에 있는 자료는 그런대로 수집이 됐으나, 해외에 있는 자료일 경우가 더 큰 문제였다. 蘇世讓의 「陽谷集」은 연세대 소장본으로 영인했는데, 제7책이 빠져서 일본 '東洋文庫'에 소장된 것을 간신히 찾아내 복사해오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표점·색인 등 활용도 높인 것이 특징

이렇게 조사된 문집은 異本을 면밀히 조사, 그중 善本을 추려 색인을 작성하고 標點을 찍는 등 치밀한 작업과정을 거쳤다. 표점이란 문장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붓뚜껑으로 가운데가 하얗게 점을 찍는 것을 말한다. 표점작업은 任正基·孟天述·宋首炅·徐祺鍾·梁鴻烈·趙昌來씨 등 6명의 전문가가 맡았으며, 다시 金喆熙·羅金柱·吳虎泳·李佑成·李鎭泳·任昌宰·鄭日泰·趙國元씨 등 8명의 감수를 거쳤다. 색인은 일년에 20책이 나올 때마다 1권씩 별책으로 꾸밀 예정인데, 인명·지명·서명, 관직명, 詩語, 주제별 要語 등을 겨냥 통계적 방법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정리,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같은 목차·표점·색인은 중국의 「四庫全書」에도 없는 것이어서 이 문집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처음부터 편찬의 실무를 맡았던 辛承云실장(39)은 이 문집을 "사료를 해석하는 열쇠"라고 표현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 가운데 善本을 집안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학연구의 기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300질 중 100질은 도서관과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나머지 200질은 국학관계 학자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배포, 실제 연구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뒤이어 올해안에 2차년도분으로 李滉의 「退溪集」에서부터 河沆의 「學齋集」까지 모두 69종20책을 발간할 예정인데, 이번 '총간'에서 제외된 문집 가운데 2000여종은 「續 한국문집총간」으로 간행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우리 문집의 체계적인 집대성으로 말미암아 국사학은 물론 국문학, 서지학, 한국철학 분야에 1차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왕조실록」 중심의 '史'에 치우친 국학연구에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200책을 완간할 수 있게 될는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지원 기자

「韓國文集叢刊」 1차년도 출간書目

叢刊번호	수록 문집	저자
9	不憂軒集	丁克仁
	敬齋遺稿	南秀文
	拭疣集	金守温
	太虛亭集	崔恒
	觀瀾遺稿	元昊
	訥齋集	梁誠之
	樗軒集	李石亨
	朴先生遺稿	朴彭年
10	保閑齋集	申叔舟
	成謹甫集	成三問
	四佳集	徐居正
11	漁溪集	趙旅
	三灘集	李承召
12	私淑齋集	姜希孟
	眞逸遺稿	成俔
	佔畢齋集	金宗直
	篠叢遺稿	洪裕孫
13	逍遙齋集	崔淑精
	梅月堂集	金時習
	青坡集	李陸
14	虛白亭集	洪貫達
	虛白堂集	成倪
15	大峰集	楊熙止
	格齋集	孫肇端
	潘谿集	兪好仁
	顔樂堂集	金訢
	蓮軒雜稿	李宣茂
	懶齋集	蔡壽
	藍溪集	表沿沫
	一蠹集	鄭汝昌
16	秋江集	南孝温
	月軒集	丁壽崗
	梅溪集	曺偉
	錦南集	崔溥
	四雨亭集	李湜
	山堂集	崔忠成
	慵齋遺稿	李宗準
	再思堂逸集	李黿
17	鄭文翼公遺稿	鄭光弼
	二樂亭集	申用漑
	木溪逸稿	姜渾
	濯纓集	金馹孫
	睡軒集	權五福
	聾巖集	李賢輔
	忘軒遺稿	李胄
	松齋集	李堣
	虛庵遺集	鄭希良
18	松堂集	朴英
	李評事集	李穆
	十清軒集	金世弼
	安分堂詩集	李希輔
	寓菴稿	洪彦忠
	憂亭集	金克成
19	訥齋集	朴祥
	大觀齋亂稿	沈義
	默齋集	洪彦弼
	冲齋集	權檢
20	慕齋集	金安國
	容齋集	李荇
21	挹翠軒遺稿	朴誾
	陰崖集	李耔
	學圃集	梁彭孫
	希樂堂稿	金安老
22	靜菴集	趙光祖
	月淵集	李迨
	企齋集	申光漢
23	思齋集	金正國
	冲庵集	金淨
	陽谷集	蘇世讓
	松齋集	韓忠
24	圭菴集	宋麟壽
	漁村集	沈彦光
	自菴集	金絿
	花潭集	徐敬德
	晦齋集	李彦迪
25	湖陰雜稿	鄭士龍
	德陽遺稿	奇遵
	養心堂集	趙晟
	立巖集	閔齊仁
26	泛虛亭集	尙震
	聽松集	成守琛
	俛仰集	宋純
	潛庵逸稿	金義貞
	武陵雜稿	周世鵬
27	溫溪逸稿	李瀣
	石川詩集	林億齡
28	大谷集	成運
	松齋遺稿	羅世纘
	長吟亭遺稿	羅湜
	龍門集	趙昱
	東皐遺稿	李浚慶
	一齋集	李恒
	葛川集	林薰

※ 제1집~8집은 편찬상의 문제로 1990년에 간행 예정임.